

# 중국 호칭어를 통한 친족문화 연구\*

## - ‘媼’, ‘娣’, ‘姪’의 비교를 통한 媵妾婚 文化

유 현 아  
(경기대학교)

### ❖ 국문초록

고대 중국의 친족 호칭은 일정 정도에서 고대사회의 혼인제도와 혈연관계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

‘媼’, ‘娣’, ‘姪’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고대의 독특한 결혼문화인 ‘잉첩혼’을 반영하고 있는 호칭으로 일부다처제도의 산물이다. 또한 이 호칭들은 축첩문화의 시발이 되는 ‘잉첩혼’을 통해 생겨난 것인 만큼 호칭을 통해 그들 사이의 주종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 친족호칭 ‘媼’, ‘娣’, ‘姪’에 대한 의미 및 용례 분석을 통해 독특한 친족 결혼문화인 ‘잉첩혼’의 특징을 살펴보고, ‘잉첩혼’이 성행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친족호칭, ‘媼(shi)’, ‘娣(di)’, ‘姪(zhi)’, 친족문화, 잉첩혼

## 1. 들어가는 말

친족이란 특정한 사회에서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이고, 이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리한 인간관계에서 호칭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친족호칭은 그 사회에서 널리 요구되는 필수적인 성격을 띠어 평소 사용 빈도수가 높으므로 기초어휘라 부른다.

기초 어휘로서의 친족 호칭어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면모를 띠게 된다. 예컨대, 중국 민족의 혈연, 혼인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중국어 친족호칭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종법제도를 통해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주요방식으로 삼고 있으므로, 매우 세밀하고 엄격한 호칭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위계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친족호칭어가 발달하였고, 친족 호칭과 사회생활의 관계가 긴밀하여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대 중국어의 친족호칭은 일정 정도에서 고대사회의 혼인제도와 혈연관계를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이 같은 친족 여성들의 호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고대 중국에 존재하던 독특한 친족 문화 중 하나인 잉첩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김원중은 『혼인의 문화사』에서 고대 중국의 결혼문화에 곽탈혼, 매매혼, 중매혼, 화혼제, 전방제와 잉첩제의 6종류가 존재한다고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媼’, ‘娣’, ‘姪’이라는 여성친족호칭에 대한 의미 및 용례 분석을 통해, 후에 축첩문화의 시작이 된 ‘잉첩혼’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모건의 푸날루아혼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II. 자매와 조카에 관한 호칭

### 1. 순위 여자형제를 나타내는 호칭 ‘姊’와 ‘媼’

先秦시기의 중국어에서 ‘순위 여자형제’를 가리키는 대표적 호칭은 ‘姊’이다. 『爾雅·釋親』에 ‘男子謂女子先生爲姊, 後生爲妹.’(남자형제가 먼저 태어난 여자형제를姊라고 불렀고, 나중에 태어난 여자형제를妹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을 통해 보건대, 이 시기의 호칭 ‘姊’는 주로 남자형제가 순위인 여자형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문헌의 용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바이다.

- ① 齊棠公之妻，東郭偃之姊也。(『左傳·襄公25年』)  
(제 당공의 아내는 동곽언의 누나이다)
- ② 潞子嬰兒之夫人，晉景公之姊也。(『左傳·宣公15年』)  
(노의 임금 영아의 부인은 진나라 경공의 누나였다.)
- ③ 子路有姊之喪，可以除之矣，而弗除也。(『禮記·檀弓上』)  
(자로가 누나의 상을 당하여, 복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벗지 않았다.)

이상은 남동생이 ‘누나’를 부를 때 사용한 ‘姊’에 대한 용례이다. 그런데 『爾雅·釋親』의 ‘姊’에 대한 풀이로 인해서 남동생만이 손위 누나를 ‘姊’라고 부를 수 있고, 여동생은 언니를 ‘姊’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해석한 경우가 있다. 王鳳陽은 『古辭辨』에서 『爾雅·釋親』의 ‘姊妹’에 대한 풀이에서 秦漢 이전에 ‘姊’는 남동생이 누나를 부르는 호칭이고, 자매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sup>2)</sup>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 ④ 問我諸姑，遂及伯姊。(『詩·邶風·泉水』)  
(여러 고모님들에게 문안드리고, 큰언니도 만나고 싶네!)
- ⑤ 女子亦謂女子先生爲姊，『爾雅』略舉一邊耳。(『爾雅義疏』)  
(여자 또한 여자 중 먼저 태어난 자를姊라고 부른다. 『爾雅』에서는 대략 한 쪽만 언급한 것이다.)

예문 ④는 許나라 穆公의 부인이 샘물이 淇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향인 衛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목부인이 자기의 큰언니를 ‘姊’라 불렀고, ⑤는 郝懿行이 『爾雅義疏』에서 『爾雅』의 ‘姊’에 대한 풀이를 주해한 내용이다. 이로써 ‘姊’는 나이 또는 항렬이 낮은 남녀 모두가 손위 여자형제를 부를 때 쓸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친족호칭임을 알 수 있다.

先秦시기 손위 여자형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호칭으로 ‘兄’이 있다. 손위 여자형제를 뜻하는 호칭 ‘兄’은 갑골문에 최초 출현하며, 금문에서도 호칭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이 나타난다. 『孟子·萬章上』에도 ‘彌子之妻與子路之妻，兄弟也.’(미자의 아내와 자로의 아내는 자매다)라 하여, 兄弟로 姊妹를

2)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326쪽.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兄이 손위 여자형제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용법은 보편적이지 않아서<sup>3)</sup> 사용된 예가 많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손위 여자형제를 뜻하는 호칭어로 존재하였음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기로 한다.

『爾雅·釋親』편에 언니를 지칭하는 색다른 호칭이 출현하는데, 바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姒’이다. ‘姒’는 『爾雅·釋親』에 ‘女子同出, 謂先生爲姒, 後生爲娣.’(여자형제가 함께 출가함에 언니를 姒라 하고, 동생을 娣라고 한다)라고 풀이하였고, 郭璞은 『爾雅正義』에서 ‘同出’에 대해 ‘謂俱嫁事一夫也.’(함께 시집가서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설명하였다.

- ⑥ 魯公乘姒者, 魯公乘子皮之姒也. 其族人死, 姒哭之甚悲, 子皮止姒曰: ‘安之, 吾今嫁姊矣.’(『列女傳·魯公乘姒』)  
(노공승사는 노나라 공승 자피의 누나이다. 남편이 죽자, 누나가 매우 슬피 울었다. 자피가 누나를 말리며 말하기를, 누님, 편안히 하시오. 내가 곧 누님을 개가시키겠소이다.)
- ⑦ 姒者, 姊也. 姊、姒聲近義同也.(『爾雅正義』)  
(姒는 언니이다. .... 姊와 姒는 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같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 보건대, 남녀 모두 손위 여자형제를 ‘姒’라 부를 수 있으며, ‘姒’는 ‘姊’와 달리 혼인형태와 관계있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즉 一夫共妻制, 보다 정확히 말해서 一夫一妻多妾制라는 혼인문화형태에서 정부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존귀한 호칭이다. ‘姒’는 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고시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친족관계에 있는 자매 또는 조카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혼인문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칭이다.

## 2. 여동생을 나타내는 호칭 ‘妹’와 ‘娣’

고대 중국어에서 여동생을 가리키는 대표적 호칭은 ‘妹’이다. ‘姊’와 마찬가지로

3) 王琪, 『上古漢語稱謂研究』, 中華書局, 2008, 117~118쪽.

가지로, 『爾雅·釋親』에 ‘男子謂女子先生爲姊, 後生爲妹.’<sup>4)</sup>라는 기록을 통해 ‘妹’는 남자형제가 여동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姊’가 남동생, 여동생 모두 손위 여자형제를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던 것에 반해, ‘妹’는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부르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시기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 ⑧ 齊侯之子, 衛侯之妻, 東宮之妹, 邢侯之姨.(『詩·衛風·碩人』)  
(제나라 임금의 자식이요, 위나라 제후의 아내요, 제나라 태자의 누이고, 형나라 제후의 이모이다.)
- ⑨ 衛莊公娶於齊東宮得臣之妹, 曰莊姜, 美而無子.(『左傳·宣公15年』)  
(위장공은 제나라 태자 득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를 장강이라고 불렀다. 미인이었으나 자식이 없었다.)
- ⑩ 鄭徐吾犯之妹美, 公孫楚聘之矣, 公孫黑又強委禽焉.(『國語·晉語一』)  
(정나라 서오범의 여동생이 미녀였다. 공손 초가 이미 청혼을 하여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공손 흑이 또 억지로 사람을 보내 납채의 예를 행했다)

예문 ⑧~⑩의 ‘妹’는 모두 오빠가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으로, 언니가 여동생을 ‘妹’라고 불렀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 ⑪ 魯元公主, 太后之女, 大王之弟也.(『新序·善謀下』)  
(노원공주(노음을 봉토로 받은 한고조 유방의 장녀)는 태후의 딸이자 대왕의 여동생이다.)
- ⑫ 趙人李園, 持其女弟, 欲進之楚王.(『戰國策·楚策四』)  
(조나라 사람 이원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초왕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4) 王琪는 위의 책에서 『爾雅·釋親』의 해석에 있어 앞 부분의 남자가 누나를姊라고 부르는 것은 고문의 주석 중에 표면적으로는 한 쪽만 언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爾雅·釋親』의 ‘男子謂女子先生爲姊’에서 ‘姊’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남자라고 설명하였지만, 사실은 여자도 언니를 ‘姊’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113, 118쪽 참조.

예문 ⑪과 ⑫는 ‘兄’에 대비되는 용례로써, ‘弟’가 상고시기에 여동생을 지칭하는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⑫와 같이 성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弟’ 앞에 ‘女’자를 덧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兄’과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사용된 호칭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언니가 여동생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은 무엇일까? 위에서 ‘姒’를 풀이할 때 언급하였던 ‘娣’이다. 『說文解字』에 ‘娣, 女弟也.’(娣는 여동생이다)라고 하였으며, 단옥재는 이에 대해 ‘同夫之女弟也. 同夫者, 女子同事一夫也.’(같은 지아비를 둔 여동생이다. 同夫란 여자들이 하나의 지아비를 함께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해하였다. 『爾雅·釋親』에도 ‘女子同出, 謂先生爲姒, 後生爲娣.’라고 하였다.

- ⑬ 獲驪姬以歸, 立以爲夫人, 生奚齊. 其娣生卓子.(『國語·晉語一』)  
(여희를 사로잡아 돌아와서 그녀를 부인으로 세우고 해제를 낳았으며, 여희의 여동생이 탁자를 낳았다.)
- ⑭ 穆伯娶于莒, 曰戴己, 生文伯, 其娣聲己, 生惠叔.(『左傳·文公7年』)  
(목백이 거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대기라 하였고 문백을 낳았다. 그녀의 여동생은 성기라 불렀으며, 혜숙을 낳았다.)
- ⑮ 又娶于陳, 曰厲嬀, 生孝伯, 早死, 其娣戴嬀生桓公, 莊姜以爲己子.  
(『左傳·隱公3年』)  
(위 장공이 또 진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가 여규이다. 효백을 낳았으나 (효백이) 일찍 죽었고, 그녀의 동생 대규가 환공을 낳으니, 장강은 환공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예문 ⑬에 대한 韋昭의 주를 살펴보면 ‘女子同生, 謂後生爲娣, 于男則言妹也.’(여자는, 여동생을 娣라 부르고, 남자는 妹라 부른다)고 하였으니, 예문 ⑧~⑩과 ⑬~⑮는 각각 호칭의 주체가 ‘오빠’와 ‘언니’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예문 ⑭와 ⑮는 자매가 한 남자에게 함께 시집을 가는 문화가 있었

5) 袁庭棟은 『古人稱謂』에서 ‘『爾雅·釋親』의 풀이로 인해 남자만 姊妹라고 부를 수 있고, 여자는 불기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선진시기에 여자는 자매를 ‘姒娣라고 칭할 수 있었고, 또한 姊妹라고 칭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韋昭의 注를 참조하건대, 姊妹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袁庭棟,

음을 증명하는 용례이다. 그러나 ‘姒’와 ‘娣’처럼 결혼을 매개로 한 친족문화를 나타내는 호칭은 현대 중국어로 계승되지 못하고 발전과정에서 도태되었다. 3장에서 이 호칭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호칭으로 교체되었는지와 교체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 3. 조카를 나타내는 호칭 ‘姪’

상고시기에 조카를 나타내는 호칭은 ‘侄’이고, ‘侄’은 ‘姪’의 속자이다. 『說文解字』에 ‘姪, 兄之女.’(姪은兄의 딸이다)라고 하였고, 단옥제는 ‘女子謂兄弟之子也.’(여성이 형제의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주해하였다. 그러나 문헌 속에서 나타나는 ‘姪’은 발화주체의 성별문제, ‘姪’의 성별문제, 지칭대상 의 직계혈연범위 등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 ①⑥ 女子謂舅弟之子爲姪。(『爾雅·釋親』)  
(여자가 형제의 자식을姪이라 부른다.)
- ①⑦ 姑謂兄弟之女爲姪。(『釋名·釋親屬』)  
(고모가 형제의 딸을姪이라 부른다.)
- ①⑧ 濟先略無子姪之敬, 既聞其言, 不覺慄然..(『世說新語·賞譽上』)  
(제가 먼저 대략 조카의 예를 없었으나 그 말을 들었으므로 엄숙함을 느끼지 않았다.)
- ①⑨ 大帝以二子託陛下. 陛下今乃欲移之他族, 無乃非天意乎! 且姑姪之與母子孰親(『資治通鑑』)  
(고종께서 두 아들을 폐하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이 제위를 다른 집안에 옮겨주고자 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 고모조카간과 모자간은 어느쪽이 더 친합니까?)

이상의 예문을 통해 보건대, 예문 ①⑥과 ①⑦의 경우 발화주체는 여성, ①⑧은 숙부와 조카간의 관계이므로 쥘 이후에는 아버지의 남자 형제도 조카를 ‘姪’이라 칭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①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조카 모두 ‘姪’이라 불릴 수 있으며, 혈연 범위문제 또한 예문 ①⑥의 ‘昆弟’가 형제자매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이므로, 종합하건대 ‘姪’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자기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일컫는 친족호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姪’의 발화주체와 지칭대상에 남녀 모두가 포함되는데, 왜 부수자를 ‘亻’ 대신 ‘女’로 사용하였을까?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다.

『左傳·襄公19年』에 ‘齊侯娶于魯，曰顏懿姬，無子。其姪鬻聲姬，生光，以為太子.’(제나라 군주가 노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안의희라 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다. 그의 조카딸인 중성희가 아들 광을 낳아 태자가 되었다), 그리고 『左傳·襄公23年』에 ‘臧宣叔娶於鑄，生賈及為而死，繼室以其姪，穆姜之姨子也.’(장선숙은 주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가와 위를 낳고 죽었다. 그녀의 조카딸을 후처로 삼았는데, 바로 목강 이모의 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姪’ 또한 위에서 언급한 친족 호칭 ‘姪’과 ‘姊’가 모두 함께 연관된 문화현상, 즉 독특한 결혼문화 현상과 관련된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즉 잉첩혼의 형태 자체가 여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姪’자도 ‘女’자 편방을 따라 造字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잉첩제가 사라지면서 고모를 따라 시집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女’자 편방이 쓰여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호칭에 반영되어 ‘侄’이 ‘姪’을 대체하게 되었다.

### III. 잉첩혼의 특징 고찰

인류의 혼인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혼인형태는 일부일처제이다. 일부일처제는 생산력이 충분히 향상되고 남녀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가족단위로서 사유제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7)</sup>

혼인의 진화는 사회진화를 나타낸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일부일처제가 정착되기까지 출현한 일련의 과정들, 즉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전환, 노예제도와 봉건제도의 출현은 남자들에게 힘, 경제력, 정치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들을 차별하는 사상이 더 보편화되고 여자

6) 유현아, 「한·중 친족호칭 비교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49집, 2013, 57-60쪽.

7) 김원중,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150쪽.



는 남자들의 점유물로 취급되는 경향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자가 여자를 독점하는 혼인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부다처’제이다.

중국에는 殷商시기 및 춘추시기에 성행했던 ‘媵妾婚’이라는 독특한 결혼 형식이 있었다. 후에 축첩제도의 유래가 되는 것으로 일부다처제의 시작<sup>8)</sup>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媵’의 의미

『說文解字』에는 ‘媵’이 아닌 ‘佚’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送也’(보내다)의 의미라고 풀이하고 있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에서 ‘佚, 今之媵字, 『釋言』曰 ‘媵, 將送也.’(佚은 지금의媵자이다. 『釋言』에 이르길 장차 보내다의 뜻이다)라고 주해하였고, 『爾雅·釋言』에도 ‘媵, 送也.’(잉은 보내다의 뜻이다)이라 하였으니, 본의는 ‘보내다’이다.

⑩ 古者嫁女必以姪娣從, 謂之媵.(『儀禮·士婚禮』)

(옛날에 딸을 시집보냄에 반드시 여동생과 조카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를 ‘媵’이라 한다.)

⑪ ‘媵者何? 諸侯娶一國, 則二國往媵之, 以姪娣從. 姪者何? 兄之子也. 娣者何? 女弟也. 諸侯壹聘九女, 諸侯不再娶.’(『公羊傳·莊公19年』)

(媵이란 무엇인가? 제후는 일국의 여자를 취한다. 두 나라일 때는 잉으로 취하니 조카나 여동생이 딸려서 시집을 온다. 姪은 누구인가? 형의 자식이다. 娣는? 여동생이다. 제후는 한번에 9명의 여자에게 장가 들고,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

⑫ 衛人來媵共姬, 禮也. 凡諸侯嫁女, 同姓媵之, 異姓則否.(『左傳·成公8年』)

(위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와서 (송나라에 시집갈)공희의 잉이 된 것에 맞는 일이었다. 제후가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동성국에서는 잉으로 보내지만 이성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8) 高佳, 「古漢語妾稱謂詞的文化解讀」, 『中州學刊』, 2006,11, 234쪽.

이상의 예문에서 보건대, ‘媵’은 시집가는 신부를 따라가는 친 여동생이나 조카딸로서 ‘妾’에 해당한다. 그러나 쫓은 일반적으로 노예나 죄인 신분이었으므로), ‘媵’의 지위는 첩보다는 높고 정부인보다는 낮은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 2. 잉첩혼과 푸날루아혼

잉첩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尸子』의 ‘妻之以媵, 媵之以英.’(황을 아내로 주고, 영을 잉첩으로 주었다)와 『易·歸妹』의 ‘歸妹以娣, 跛能履, 征吉.’(누이가 출가하여 첩이 되니 다리를 절룩거리긴 하지만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면 상스럽다.)의 내용이 가장 이른 시기의 관련 기록이라고 보여진다.<sup>10)</sup>

그렇다면 잉첩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잉첩혼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그 연대를 고찰할 수는 없으나, 대략 원시사회의 族外群婚에서 對偶婚으로 변화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원하였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잉첩혼은 같은 가족 중의 자매와 조카딸이 함께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므로 족외군혼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남편 한 명에 속하는 많은 아내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의 본처가 있다. 이것은 對偶婚의 기본적 특징이다. 따라서 잉첩제는 위의 두 가지 혼인제도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그런데 잉첩혼은 중국에만 존재하였던 결혼 문화는 아니다. 모건은 『고대사회』에서 푸날루아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푸날루아혼이란 모건이 하와이에서 만난 원주민 가족을 통해 발견한 혼인형태로서, 한 집단의 직계 및 방계의 여러 자매와 각자의 남편과의 통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은 반혈족혼으로서 기존의 혼인형태를 무너뜨리고, 처를 공유하는 형제집단과 남편을 공유하는 자매 집단의 혼인형태로 변모한 혼인문화라고 소개하였다.<sup>12)</sup> 마

9) 『說文解字』: ‘妾, 有罪女, 給事之, 得接于君子.’

10) 夏雨晴, 「從『爾雅·釋親』“妻黨”子目看早期社會的婚姻制度」, 『宿州教育學院學報』, 2003, 12. 60쪽.

11) 熊焰, 「上古漢語親屬稱謂與中國上古婚姻制度」, 『暨南學報』1, 1996, 102-103쪽.

12) 루이스 헨리 모건, 『고대사회』, 최달근·정동호 역, 문화문고, 2005, 68, 440쪽.

르크스도 일찍이 푸날루아혼에 주목하여, “푸날루아가족제도 하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본처가 있고, 여자 쪽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푸날루아혼은 대우혼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앵겔스 또한 『가정, 사유제와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만딸과 결혼하는 남성은 시집갈 나이가 된 신부의 여동생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고대 중국의 잉첩혼 형태가 서양에서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잉첩제는 족외혼시대에 만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여자의 자매나 조카딸을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는 문화로서, 아내 쪽 여자친족이 남편을 공유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전환되는 초기에 출현하였으며, 周代 전통적인 종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一夫一妻多妾制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생겨난 원인 중 하나에 친자매와 조카를 한 남자에게 시집보내는 것이 다첩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이 또한 잉첩혼의 특징이라 하겠다.

잉첩혼은 상당기간 유지되어 온 혼인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규범을 갖추고 있다. 『爾雅正義』에 따르면 媵 사이에도 신분의 귀천 및 그 역할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爾雅正義』曰: “何休『公羊傳注』云: 禮, 嫡夫人無子立右媵, 右媵無子立左媵, 左媵無子立嫡姪娣, 嫡姪娣無子立右媵姪娣, 右媵姪娣無子立左媵姪娣, 此媵之位有貴賤也.”

(『이아정의』에 이르기를: 하후의 공양전 주에 이르길, 예에 따르면 적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우잉을 세우고, 우잉에게 자식이 없으면 좌잉을 세운다. 좌잉에게 자식이 없으면 적질적제를 세우고, 적질적제에게 자식이 없으면 우잉의 질제를 세우며, 우잉의 질제에게 자식이 없으면 좌잉의 질제를 세우니, 이는 잉의 지위에 귀천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을 통해서 媵이 본래 적(嫡)부인 즉 정실부인의 여동생이나 조카

13) 熊焰, 上同, 102-103쪽.

딸인 친족관계이지만, 혼인 후에 정실부인은 존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媵은 종속적 지위로서 정실부인을 모셔야하는 의무가 있는 주종관계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 외에도, 남편의 신분에 따라 잉의 숫자에 제한이 있었다. 천자가 황후를 취할 때에는 세 개의 제후국에서 잉첩을 보내오는데, 각 나라에서 온 세 명의 잉과 황후가 데려오는 두 명의 잉을 합하면 모두 열두 명의 잉첩이 따라오게 된다. 제후는 두 나라에서 잉을 취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아홉 명의 여자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경대부는 3명, 선비는 잉을 취할 수 없었다.<sup>15)</sup>

이상으로 보건대, 상당한 격식과 체계를 갖춘 잉첩제는 은상시기에 제도화되어 西周부터 춘추시기에 성행하였으나,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잉으로 제공하는 여자의 수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혼인제도는 봉건사회의 항렬규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서한 초기부터는 더 이상의 기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sup>16)</sup> 이처럼 잉첩제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호칭인 ‘媼’와 ‘娣’도 자연스럽게 친족호칭에서 도태되고 ‘姊’와 ‘妹’에 의해 대체되었다.

#### IV. 나가는 말

친족관계 및 그 호칭에 관한 연구는 언어와 문화관계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연구과제이다. 특히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혼인제도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대 중국사회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형태의 혼인형태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친족호칭어의 출현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잉첩혼’과 관련된 친족호칭어를 선별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고대 중국어에서 순위 여자형제를 나타내는 대표적 호칭에는 ‘姊’,

14) 『釋名·釋親』: ‘姪娣曰媵, 媵, 承也. 承事嫡也.’

15) 김원중,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169-170쪽.

16) 王琪, 『上古漢語稱謂研究』, 中華書局, 2008, 91~94쪽.

‘兄’, ‘姒’가 있다. 이 중에서 ‘姒’는 독특한 결혼문화인 잉첩혼을 반영하고 있는 호칭으로, 남편을 공유하는 일부다처제도에서 정실(嫡)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둘째, 고대 중국어에서 여동생을 나타내는 주요 호칭에 ‘妹’와 ‘娣’가 있다. 이 중 잉첩제를 나타내는 핵심 호칭은 ‘娣’이다. ‘娣’는 친언니를 따라서 같은 지아비를 섬기는 ‘媵’의 신분으로, 언니인 ‘姒’를 모시며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호칭이다.

셋째, 고대 중국어에서 남녀 조카 모두를 나타내는 호칭 ‘姪’ 역시 잉첩제의 산물이다. 잉첩제가 사라지면서 고모를 따라 시집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女’자 편방이 쓰여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侄’이 ‘姪’을 대체하게 되었다.

넷째, 이상의 호칭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여자의 친족들에 의해 형성된 친족문화인 잉첩혼이라는 특수한 결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문헌 분석을 통해 당시 잉첩제의 성행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부다처제는 처첩간의 투기 및 싸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혈연관계를 토대로 한 잉첩혼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종법가족제도를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를 잇는 것은 당시 귀족들의 중요 임무이다. 따라서 잉첩혼을 통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잉첩끼리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를 잇는 중요한 일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적다.

이상으로 ‘姒’, ‘娣’, ‘姪’의 호칭 비교를 통해 잉첩혼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 편폭과 시간상의 제한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푸날루아혼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친족 호칭과 문화적 비교 연구를 통해 친족호칭문화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원중,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 루이스 헨리 모건, 『고대사회』, 최달곤 정동호 역, 문화문고, 2005.
- 유현아, 「한·중 친족호칭 비교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49집, 2013.
- 高 佳, 「古漢語妾稱謂詞的文化解讀」, 『中州學刊』, 2006.
- 唐 娟, 「從幾組親屬稱謂管窺古代婚姻制度」, 『文教資料』, 2007.
- 白振有, 「漢字蘊涵的婚姻文化」, 『延安大學學報』, 2008.
-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 王 琪, 『上古漢語稱謂研究』, 中華書局, 2008.
- 袁庭棟, 『古人稱謂』, 四川教育出版社, 1994.
- 劉尙雲, 「從“婚”字群漢字透視古代婚姻文化」,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07.
- 劉伯鑒, 「關於古漢語中早期親屬稱謂“私”的研究」, 『西北大學學報』, 1983.
- 吳 萌, 「從『爾雅·釋親』中親屬稱謂詞探古代女性地位」, 『赤峰學院學報』, 2012.
- 熊 焰, 「上古漢語親屬稱謂與中國上古婚姻制度」, 『暨南學報』, 1996.
- 何秋菊, 「從『說文·女部』字看漢語詞彙中女部親屬稱謂詞的演變」, 『湖北師範學院學報』, 2011.
- 夏雨晴, 「從『爾雅·釋親』“妻黨”子目看早期社會的婚姻制度」, 『宿州教育學院學報』, 2003.

❖ ABSTRACT

## A Research on Relative Cultivation through Appellations in Chinese

Yu, Hyuna

When ancient Chinese people called their relatives, both the marriage system and their blood ties are reflected in the kinship terms.

For examples, the ancient China's unique marriage system, “yingqiehun,” is reflected in kinship terms, like “shi,” “di,” and “zhi,” which reflect the fact that women relatives married the same person, and thus resulting from the polygamy.

Furthermore, there are good reasons to assume that there are master-and-servant relationships, as evidenced through the kinship terms “yingqiehun” from the beginning of polygamy.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feature of their unique marital culture, “yingqiehun” by analyzing each meaning of “shi,” “di,” and “zhi” and other examples, and will also examine the cause of its prevalence at that time.

---

### Key Words

kinship terms, 姒 (shi), 娣 (di), 姪 (zhi), cultural relativism yingqiehun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